

세계 평화와 일치를 위한

# 100만 어린이의 묵주기도 캠페인



2018.10.18 (목) 오전 9시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발행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www.millionkidspraying.org](http://www.millionkidspraying.org)

## 여러분, 안녕!

다시 한번, 여러분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 왔어요! 여러분도 분명 들어서 알겠지만, 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굶주리고 아파하고 있지요. 가끔 어른들은 더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잘 알고 있지요. 여러분이 바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성경 공부할 때 배웠을 거예요.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축복해 주실 것을 청한 적이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을 막았어요. 예수님께서서는 그러지 말라고 하시며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에게는 특별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도와드릴 수 있고, 세상의 나쁜 것들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 세계 평화를 위해 우리 다 같이 묵주기도를 해요! 묵주기도에는 강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묵주기도를 바칠 때 여러분은 성모님의 손을 잡게 되지요. 그때 성모님께 예수님의 기적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청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성 마리아 알폰시나 수녀님처럼 말이에요. 알폰시나 수녀님이 누구인지 지금부터 알려줄게요.

기적이 일어난 날은 1886년 4월 14일이에요. 한 수녀원에서 누세이라 하비브라는 12세 소녀가 바닥 청소를 하는 것을 돕고 있었어요. 옛날엔 건물에서 수돗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세이라는 바닥을 닦을 물을 우물에서 길어와야 했죠. 물을 길으려면 커다란 양동이를 매단 밧줄을 우물 끝까지 내려야 했어요. 첫 시도는 성공적이었어요. 그런데 다음이 문제였어요. 두 번째로 시도했을 때 누세이라는 힘이 부족해서 물이 가득 찬 양동이의 무게를 견뎌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만 8미터 깊이의 우물로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누세이라를 지켜보고 있던 캐서린 수녀님은 그녀를 도와 달라고 크게 소리쳤어요. 10분이 지나자 밧줄을 든 사람들이 우물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누세이라의 머리가 우물 밑에서 몇 번씩 움직이는 것을 느꼈지만, 정신을 잃어가고 있던 누세이라가 밧줄을 붙잡고 있기는 어려웠어요. 누세이라의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도 서둘러 우물로 달려왔어요. 모두 누세이라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나 누세이라를 구할 방법이 없었어요.

당시 알폰시나 수녀님은 아이들과 함께 성전으로 가 감실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소식을 들은 아이들은 모두 온 마음으로 예수님께 자신들의 친구를 구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알폰시나 수녀님은 우물로 달려가 물속으로 묵주를 던지며 눈물로 소리쳤죠. “묵주기도의 모후시여, 이 어린이를 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 고통에서 도와주소서!” 몇몇 사람들은 그런 수녀님을 보고 비웃으며 말했어요. “지금쯤 그 어린이는 죽었을 겁니다. 벌써 한 시간 동안이나 우물 밑바닥에 있었어요!” 수녀님은 그 말에도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계속 목주기도를 바쳤습니다. 캐서린 수녀님은 우물을 지키며 성모님께서 누세이라와 그들을 위해 하느님께 빌어주시리라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우물 밑으로 양동이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때 밧줄에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캐서린 수녀님은 서둘러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밧줄을 당기며 양동이를 끌어 올렸어요.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양동이 안에는 누세이라가 있었어요! 누세이라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캐서린 수녀님을 끌어안고 말했어요. “제가 물속에 있을 때, 아주 밝게 빛나는 목주가 제 위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제 목과 손에 닿는 것이 느껴졌어요. 우물 속이 환하게 빛났어요. 침대 위에 있는 것처럼 물속이 편안해졌어요. 그러더니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밧줄을 잡아!’라고 외치는 것도요. 그래서 밧줄을 잡고 이렇게 무사히 올라올 수 있었어요.” 캐서린 수녀님은 바로 성전 안으로 달려가 알폰시나 수녀님께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해 말했어요. 누세이라도 기뻐하며 알폰시나 수녀님께 달려가 안겼지요. “우물이 목주로 인해 환하게 밝혀진 것을 보고 너무 기뻐어요! 사람들이 저를 너무 빨리 구해주었다고 느낄 정도예요!” 그 뒤로 누세이라는 매일 수녀님들과 목주를 바쳤어요. 하루도 빠짐없이요. 그리고 자신이 겪은 기적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지 않고 설명해주었어요.

**여러분도 누세이라와 알폰시나 수녀님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함께 기도해요! 고마워요!**

## 묵주기도 방법

1. 성호경
2. 사도신경
3. 주님의 기도, 성모송 세 번, 영광송
4. 신비 1단
5. 주님의 기도, 성모송 열 번, 영광송, 구원을 비는 기도
6. 신비 5단까지 반복합니다.
7. 성모찬송과 성호경으로 마칩니다.



## 성호경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사도신경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밀줄 부분에서 모두 깊은 절을 한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 주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 성모송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종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 영광송

〈밑줄 부분에서 고개를 숙인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 구원을 비는 기도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 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 성모찬송

-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뵈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써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어린이를 위한 묵주기도 - 환희의 신비

### 1 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느님께서 대천사 가브리엘을 나자렛의 마리아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될 것인지 물어보시기 위함이었지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곧 태어날 아기의 아버지가 하느님이라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느님께서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네”라고 응답했습니다.

마리아님, 하느님의 어머니, 저희는 당신께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당신의 믿음을 주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어머니처럼 언제나 하느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 무엇이든 따를 수 있게 하소서.



##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하십시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사촌 언니인 엘리사벳 또한 어머니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 그녀를 돕기 위해 나자렛을 떠났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서로 인사를 나누자 엘리사벳은 배 속의 아이가 기뻐하며 발차기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엘리사벳에게 그 신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빛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엘리사벳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마리아, 당신은 복되십니다! 당신은 (하느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 하느님의 어머니, 저희는 당신께 모든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에게 하느님을 알려 주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느님을 믿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열린 마음을 찾을 수 있게 하소서.



###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갔을 때 그들은 마구간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서서는 이곳에서 태어나셨지요. 가장 먼저 성자에게 찾아와 경배한 것은 목자들이었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구원자이신 메시아께서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리아, 하느님의 어머니, 저희는 당신께 살 곳을 잃어버린 모든 아이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들은 전쟁이나 자연 재해로 집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상냥한 사람들을 보내 주시고 하느님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빌어 주소서.



####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40일 만이었죠.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라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성인인 시메온도 성전으로 왔습니다. 성령께서 시메온에게 아기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 주셨기 때문에 시메온은 기뻐하며 겸손하게 예수님을 두 팔로 안고 분명하게 외쳤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모든 이들을 밝혀줄 빛을 말입니다!”

예수님, 저희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당신께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은총을 주시고 당신에 대해 듣고 당신만이 세상의 구원이시자 빛이심을 이해할 기회를 주소서.



## 5단. 마리아께서 잃으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께서 12세가 되셨을 때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습니다. 파스카 축제를 지내기 위함이었죠. 예수님께서 는 축제 이후에도 성전에 남아 학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느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그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고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지요. 그들은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알게 되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걱정하며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직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는 자녀를 잃은 모든 부모님을 위해 당신께 기도합니다. 또한, 자녀를 걱정하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느님 안에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느님께서 모든 순간에 함께하심을 알게 하소서.



##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

마리아님, 나의 어머니여

저는 오늘 한없는 기쁨으로 당신께로 갑니다

저의 온 마음을 당신께 드립니다.

또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제가 행한 모든 것을

저의 모든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모든 이를

당신께로 데려 갑니다.

저의 부모, 저의 형제자매,

저의 모든 친구들,

★ 또한 제게 상처를 주었던 모든 이들을.

저희 모두의 어머니가 되어 주시어

축복하고 보호하여 주소서.

저는 당신의 자녀가 되고자 합니다.

친어머니와 같이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을 온전히 믿고 기도드립니다.

제가 당신께 속해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어머니. 저는 이제와 또한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 당신을 통해

언제나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할 것을 저는 다짐합니다.

아멘.



## ACN은

- Aid to the Church in Need의 약자로, 세계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톨릭교회를 지원합니다.
- 교황청 재단으로, 전 세계 23개국에서 모금활동을 펼치며 한국은 21번째, 아시아 최초로 지부를 열었습니다.
- 매년 140여 개국에서 5,000개 이상의 사업을 지원합니다.
- 알리고, 기도하고, 행동합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337호 | 전화: 02-796-6440

홈페이지: [www.churchinneed.or.kr](http://www.churchinneed.or.kr) | 이메일: [info@churchinneed.or.kr](mailto:info@churchinneed.or.kr)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1-121620 | 예금주: (사)에이드투더처치인니드코리아